

일본군 직접나서 납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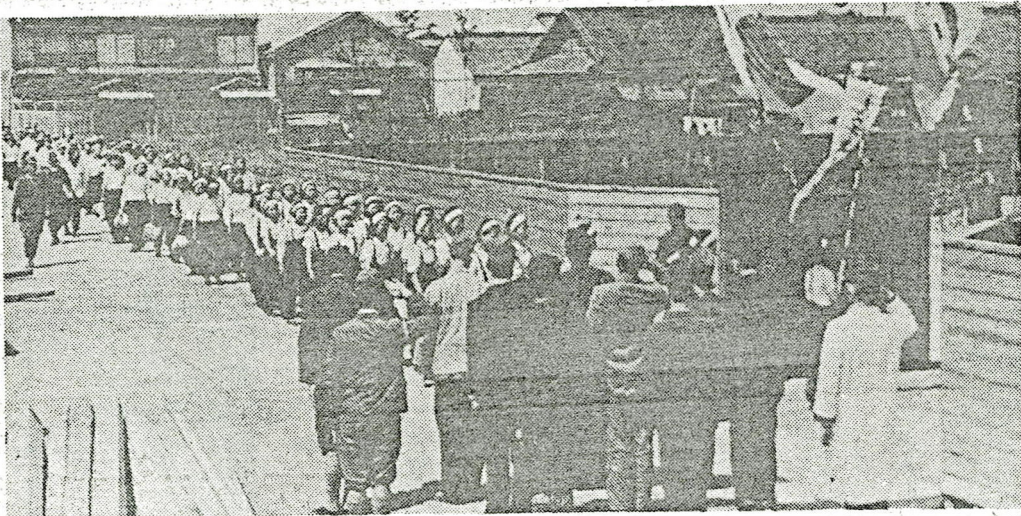
역사의 전면으로 드러나는 정신대 실태

태평양 전쟁 말기 12살 난 여자 국민학생까지 근로정신대로 징발해간 일제의 만행을 입증하는 학적부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정신대'라는 이름 아래 묻혀 있던 진실들이 역사의 전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신대는 곧 중군위안부'라는 사회인식 때문에 스스로를 감출 수밖에 없었던 정신대 희생자들의 한맺힌 삶들이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다.

중·일전쟁 치르며 본격화

일제하 조선여성들이 정신대라는 명칭으로 징발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학계에서는 1937년 중·일전쟁 당시 관동군의 만주 주둔이 길어지면서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1944년 6월께 이른바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 동원된 국민학교 여학생 등 어린 한인소녀들이 손에 보따리 등을 들고 미쓰비시 중공업의 기숙사에 들어서고 있다.

일선 행정조직도 침범

탈출하면 살해...현지사망 수두룩

동원령 거부할땐 징역

당시만 하더라도 일제는 강제 징집이 아닌 지도·권장 등의 방법으로 학교, 직장, 애국반, 사회단체 등을 통해 조선여성을 징발했다.

그러나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전선이 버마(미얀마), 태국(타이) 등 동남아로까지 확대되자 같은해 8월23일 후생성령으로 '여자정신근로령'을 공포한 뒤 12~40살의 배우자가 없는 여성들을 강제징집하기 시작했다.

여자정신근로령은 징발대상 여성에게 '근로정신령서'를 발부해 정신대 동원을 명령한 뒤 불응할 경우 취업을 강제하고 '국가총동원법'의 규정을 적용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장·작업장서 물색

일제는 처음에는 각 도·군·면의 행정조직을 통해 정신대를 징발하다가 조선인들의 저항이 심하자 일본군 안의 동원반을 직접 파견해 젊은 여성들이 많

처음에는 탄광이나 공장, 군 막사 등에서 일하다가 또다시 중군위안부로 끌려갔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이옥분(64·여·부산시 부산진구 범천4동)씨는 경북 영천군 영천읍 영천국교 3학년 때인 39년 정신대로 끌려갔다.

소꿉놀이하다 끌려가

이씨는 마을에서 소꿉놀이를 하던 중 한국인 일제 앞잡이인 '처녀 공출자' 2명에 의해 끌려가 경남 울산의 수용소에서 3개월 가량 갇혀 있다가 부산을 통해 일본 시모노세키수용소로 넘겨졌다.

이씨는 시모노세키의 일본군 장교 집에서 식모로 일하다가 18살 때 대만 가오슝시에 주둔하던 일본군부대 근처의 정신대수용소로 끌려가 일본 패망까지 일본군의 성적 노리개로 위안부 생활을 해야 했다.

"1만명의 위안부 중 살아남은 사람은 1천명 정도였다"는 이씨는 "일본군의 감시가 심해 탈출

권희준 유족회 사무장은 "15일에만 인천과 경기 용인 등에서 몇건의 신고전화화 있었다"면서 "최근 유족회가 부산, 서울, 전남, 성남 등에서 파악하고 있는 생존 위안부 수는 8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

근로정신대의 경우 일본군의 성적 노리개는 면할 수 있었지만 인간으로서 건디기 힘든 혹독한 육체노동에 종사했다.

성동구 행당1동에 사는 양춘희(61·여)씨도 덕수고등학교 고등과 2학년에 다니던 44년 7월 같은 반 여학생 15~16명과 함께 후지코시공장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됐다.

양씨는 "1개월의 기초훈련에 이어 다시 1개월 동안 선반작업 기술을 배운 뒤 비행기 톱니바퀴를 제작하는 정밀기계공장에 함께 끌려온 50여명과 함께 배치돼 줄곧 같은 기숙사에서 지냈다"면서 "미군의 일본 본토 폭격이 시작되면서 히시즈이 그

17일 14대총신, 공천신청 접수 하는 사인인 만큼 대통령직 직접 우선 중·분구지역의 경우 서울, 다.분구원 파견 시총의 경우 조 (전주) 강현옥 전 경제기획관